



미국 보험산업의 M&A 현황 및 향후 전망

이아름 연구원

2016년 미국 보험산업 M&A 규모는 2015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2016년 상반기에는 투자자의 신뢰 저하, 매각 보험회사의 고평가, 해외 투자자 감소, 달러 강세 등으로 M&A가 부진하였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 해외 투자자 증가, 매각 보험회사의 규모 증가, 매수회사의 다양화, 사모 펀드의 M&A 활성화, 인수테크 회사와의 합병 등으로 M&A가 증가함. 2017년 미국 보험산업 M&A는 2016년 하반기와 유사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미국 보험산업 M&A의 총계약 가치와 총계약 건수는 2015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¹⁾
 - 2016년 미국 보험산업의 M&A는 손해보험회사의 M&A 감소로 총계약 건수는 522건, 총계약 금액은 273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5년 대비 각각 8%, 61% 감소함.
 - 2016년 생명보험회사의 M&A 총계약 금액은 33억 달러로 2015년 대비 72% 감소하였고,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도 172억 달러로 2015년보다 68% 감소함.
 - 반면, 보험중개사의 M&A는 2005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계약 건수를 기록하면서, 총계약 금액은 2015년 대비 62% 증가함.
 - 2017년 보험산업의 M&A는 2016년 하반기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016년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상반기에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자의 신뢰 하락, 매각 보험회사의 고평가, 일본 및 중국 투자자의 감소, 달러 강세로 인한 매각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M&A가 부진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세계 및 미국 경제 둔화, 미국 금리 인상 시기 미정, 기업수익성 둔화, 미국 대통령선거 후 규제정책

1) Deloitte(2017), "2017 Insurance M&A Outlook-Will tailwinds or headwinds prevail?"

과 조세제도 변화 가능성, 브렉시트 국민투표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신뢰가 하락함.

- 또한, 매각회사의 가치는 고평가되어 있었고, 아시아 투자자들의 M&A도 미국과 중국 규제당국의 강화된 규제 및 달러 강세로 인한 합병비용 상승 등으로 2016년 상반기에는 부진함.
- 한편, 2015년에 합병된 회사들의 실적 부진으로 매수회사들의 M&A 유인이 감소함.

■ 반면, 2016년 하반기에는 해외 투자자 증가, 매각회사의 규모 증가, 매수회사의 다양화, 사모펀드의 M&A 증가, 인수테크 회사와의 합병 증가 등으로 M&A가 늘어남.

- 2016년 10월 일본 Sompo Holdings가 63억 달러에 버뮤다 소재 Endurance Specialty Holdings를 인수하였으며, 중국 Oceanwide Holdings가 Genworth Financial을 27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가 증가함.
- Arch Capital Group이 UGC 보험회사를 34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보스턴 소재 Liberty Mutual은 중국 대기업 Fosun International로부터 글로벌 보험회사인 Ironshore를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매각 보험회사의 규모가 증가함.
- ‘신인의무(fiduciary duty) 강화조치²⁾’ 대응의 일환으로 판매채널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하여 전국상호보험회사(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³⁾가 연금회사인 Jefferson National을 인수하는 등 매수회사도 다양해짐.
- Genstar Capital이 Acrisure LLC를 29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사모펀드의 M&A도 증가하고, Munich Re에 합병된 Hartford Steam Boiler 회사가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회사인 Meshify를 인수하는 등 인수테크 회사와의 합병도 늘어남.

■ 2017년 보험산업 M&A는 긍정적·부정적인 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6년 하반기와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성장 및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자자의 신뢰 제고, 법인세 인하 등 조세제도 개혁, 도드-프랭크법 및 볼커룰 개정 등 금융규제 완화 가능성 등이 있음.
-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매각 대상 보험회사의 감소, 신정부의 정책 및 규제 개혁 불확실성, 아시아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 불확실성 등이 있음. [kiri](#)

2) 오바마 정부의 퇴직연금 관련 규정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자신의 인센티브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수수료가 높은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3) 미국 보험회사들과 금융서비스기관들이 연계하여 만들어진 보험회사로, 손해보험, 생명보험, 연금, 자산관리, 투자 등과 관련한 상품을 판매함.